

# 소소·KCD·유뱅크 등 도전장... '자본력·혁신서비스' 관건

## 제4인터넷은행 경쟁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 필수적  
소소뱅크, DGB금융그룹 사업 검토  
유뱅크컨소, 현대해상 운영 참여

소소뱅크, KCD뱅크, 유뱅크 등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물밑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신규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충분한 자본력과 혁신서비스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세밀한 인가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제4 인터넷은행 진출을 노리는 곳은 금융그룹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자체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여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소뱅크, KCD뱅크, 유뱅크 등 3곳이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유뱅크컨소사업은 현대해상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컨소사업에는 핀테크기업 '렌딧', 세금 환급 플랫폼 삼점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외환 송금과 결제 스타트업 '트래블월렛',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루닛'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핀테크 업체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고 KCD뱅크를 출범했다.



유뱅크 컨소사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유뱅크 컨소사업

같은 해 12월에 소상공인·소기업 단체 35곳이 모여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공고를 내고 신청을 접수했다면 앞으로는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도전자가 나오면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 ◆인가여부, 자본력 확보

이들의 인가여부는 자본력 확보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최소 250억원의 자본금과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사례를 보면 출범 시점에만 약 3000억원이 필요했다. 또 인가 이후에도 일단 증자를 통해 2조원 가까이 확보했다.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수 년이 걸려 초기 투자자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제3인터넷은행에서 탈락한 이유로 자본능력을 꼽았다. 제3인터넷은행 설립에 카카오뱅크는 KB국민은행,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토스뱅크는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이 기여한 것으로 봤을 때 은행권과 금융그룹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에는 DGB금융그룹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19년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한 소소뱅크는 소상공인들의 출자와 금융투자자컨설팅을 통해 1조원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한 상태다. 이들은 소상공인, 스타트업에 대한 신용평가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터넷은행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유뱅크 컨소사업에는 P2P금융사인 렌딧과 루닛, 자비스앤빌런즈, 트래블월렛 외에도 현대해상이 참여한다. 현대해상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낼 계획이다. 유뱅크는 참여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시니어 소상공인, 외국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을 내놓을 계획이다.

### ◆은행권 금융그룹 마중물 역할 '글쎄'

다만 일각에선 은행권 금융그룹이 단순 투자만 하는 재무적 투자자로(FI)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과 금융그룹의 디지털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인터넷은행의 기술력과 격차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행권 혹은 금융그룹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수익성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자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인가구 1000만 넘어선다

지난달 말 기준 1인가구 998만개  
서울지역 이달 200만개 확정적

국내 1인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지역 1인가구 수는 이달 내 200만 진입이 확정적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세대) 수는 지난달 말 기준 998만 개로, 전월(994만 명)에 비해 3만8000개 증가했다. 사상 최대를 경신 중이고, 오는 3월 말 집계는 10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3월에 못 미치더라도 4월 집계에선 진입 가능성이 매우 짙다.

올해 2월 1인가구는 10년 전인 2014년 2월(690만 개) 대비 308만 개(+44.6%)

늘었다. 1년 전(2023년 2월, 977만 개)에 비해서도 20만3000개 증가했다.

서울지역 내 1인가구 수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작년 2월 196만 개에서 올해 2월 199만 개로 1년간 3만 개 늘었다. 10년 전(151만 개)보다는 무려 48만 개 증가했다. 세부 수치로, 수도권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은 지난달 기준 200만 명에 단 1명 모자란 199만 99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홀로 거주하는 사람 수는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 서울에만 5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비혼 청년층 및 고령층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라며,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직장인 절반 "1년간 보안인증 미확인"

>> 1면 'DX중심 클라우드'서 계속

조사 항목 각각은 ▲국가별 개인정보 보안인식점수(46) ▲일상의 디지털 보안습관 점수(36) ▲개인정보 보안 인식 점수(49) ▲국가별 디지털 위험지수(50)으로 이를 합산한 점수는 전세계 평균 61점에 못 미치는 46점으로 나타났다. 보안의 중요성과 방법을 잘 이해한 응답자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오픈서베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보안 인식 조사 결과에서조차 다양한 보안 인증 체계에 대한 중요성 이해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응답한 비율은 55.5%에 이르렀고, 인증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없다"는 13.1%, "보통"은 46.2%에 달했다. 보안 사고 후태도 또한 "불쾌했지만 계속 사용함"이 51.1%였다.

/김서현 기자 seoh@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증을 만드는 꿈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 DB 모두의 마음 속엔 꿈이 있습니다

보험	금융	반도체·IT
DB손해보험, DB생명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캐피탈	DB아이텍, DB글로벌칩, DBInc.

DB금융서비스, DB FIS, DB메탈, DB월드, DB월드건설, DB커뮤니케이션즈